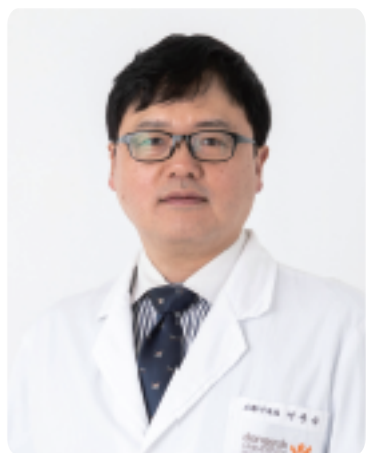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미워할 때 그 마음은 얼마나 괴로운 것이던가요.

지우려고 하지만 잘 지워지지 않는 것이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 성전스님 -

소화기내과 이준규 교수, ‘중증 급성 췌장염 줄기세포치료제 효과’ 세계 최초 입증, 다기관 임상시험 참여



소화기내과 이준규 교수가 참여한 국내 다기관 연구팀이 한국 독자 기술로 개발한 줄기세포치료제(SCM-AGH)가 중등증 이상 급성췌장염 환자에서 초기 염증 수치 호전에 효과가 있음을 세계 최초로 입증했다. 연구 결과는 미국 소화기학회 공식 학술지인 Gastroenterology(논문 영향지수=33.8)에 게재됐다.

이준규 교수는 “중등증 이상 급성 췌장염 환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치료 약물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새 줄기세포 치료제의 효과 가능성을 입증하고, 소화기학 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에 관련 임상시험 논문이 실린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그동안 치료가 어려웠던 급성췌장염 환자들이 초기에 치료 받고 건강과 일상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합동포럼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5일 5층 대강당에서 ‘Journey toward Dongguk AI-SMART HOSPITAL with medicine and engineering’을 주제로 합동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동국대학교 공과대학과 협력하여 개발된 생체신호 처리기술, 자율주행 로봇, 통신 기술 등이 소개되었다. 이 기술들은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더 많은 환자를 정확하게 치료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병원 내 다양한 장비와 재료의 관리에 있어서도 최적의 시스템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범선 병원장은 “이번 합동 포럼을 통해 의료와 공학의 융합이 가져올 미래 의료의 새로운 모습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의료 데이터 활용 연구 시나리오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지난 1월 30일 의료 데이터 활용 연구의 활성화와 국가사업 연구 연계를 목적으로 개최한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시나리오 경진대회’의 시상식을 했다.

이번 행사는 의료 분야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혁신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수상의 영예는 내분비내과 이승은 교수, 소화기내과 김주성 교수, 소화기내과 오동준 교수가 안았다.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이번 경진대회가 의료데이터 활용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와 혁신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검진센터 이전 개소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15일 4층에 일반검진센터를 이전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전된 일반검진센터는 넓은 공간과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환자들이 더 효율적이고 편안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권범선 병원장은 “새롭게 이전한 일반검진센터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개소가 병원의 질적 성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환자가 추천하는 우수 교직원상 시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지난 2월 15일 ‘환자가 추천하는 우수교직원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번 시상식은 환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추천을 받은 총 네 명의 교직원이 선정되었다. 외래 환자들이 추천한 내분비내과 김경아 교수, 입원환자들이 추천한 이비인후과 김보해 교수, 정형외과 금민성 전공의, 92병동 이경희 간호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권범선 병원장은 시상식에서 “환자들이 직접 참여한 설문과 칭찬 글을 통해 선정된 이번 시상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환자들에게 힘이 되는 교직원이 되길 바란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환자가 추천하는 우수교직원상은 칭찬건수, 입원/외래환자 대상으로 시행되는 환자경험평가 결과와 1인당 환자수를 종합적으로 산출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시상은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다.

